http://dx.doi.org/10.14400/JDC.2016.14.9.505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이유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김성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 of Stress and Reasons for Living on Suicidal Ideation :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Sung-Hye Ki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통합한 매개된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소재 대학생 608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살생각, 삶의 이유,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삶의 이유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삶의 이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매개역할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경험한 대학생들의 삶의 이유를 증가시킴으로써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삶의 이유와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삶의 이유와 사회적 지지라는 보호요인에 중점을 두고 자살예방 개입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보건, 복지, 교육, 종교 등 각 영역에서 융복합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차후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확대하고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제어 : 스트레스, 자살생각, 삶의 이유, 사회적 지지, 매개된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Reasons for Living play mediating roles in the links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nd Social Support moderate the effect of stress on Reasons for Living. In addition,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was examined. A total of 608 university students completed self-reporting questionnaire on stress, suicidal ideation, Reasons for Living and social support. The results indicated that Living on Suicidal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nd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links between stress and Living on Suicidal. Finally,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Living on Suicidal, and suicidal ideation was foun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support may function as a protective factor for university students' suicidal ideation.

Key Words : Stress, Suicide idea, Reasons for living, Social support,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Received 28 June 2016, Revised 11 August 2016
Accepted 20 September 2016, Published 28 Sept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Sung-Hye Ki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goodsh@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은 취업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대인관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및 약물남용, 인터넷 중독,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1]. '2014년 사망원인통계'에서, 대학생의 주 연령대인 20대의 자살 사망률은 17.8명이었고,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확인되었다[2].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의 자살문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알 수 있다.

자살과 관련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 자살 위험성이 증가한다[4]. 특히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은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생활 스트레스 사건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5,6]. 또한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보다 만성적이며 일상적인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 위험성을 더 잘 예측한다고[7] 하였다. 학업, 경제적 어려움, 취업, 대인관계 문제 등은 대학생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살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8].

그러나 모든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삶의 이유와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계에서 그 영향력을 완화한다.

Linehan 등[9]은 자살을 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생존과 대처 신념', '가족에 대한 책임', '자녀에 관한 걱정', '자살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도덕적 혐오'의 6가지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삶의 이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살생각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학생의 삶의 이유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절망감을 해결하는 대신에 그대로 받아들여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생각, 자살행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유리[11]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삶의 이유 중 '생존과 대처신념'이 우울과 무망감 보다 자살욕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도덕적 혐오'와 '자살에 대한 두려움'은 자살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삶의 이유가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지영[13]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삶의 이유가 적은 사람보다 삶의 이유가 많은 사람이 자살 생각을 적게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대학생들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를 감소하는 중요한 완충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책임'이 높은 경우 자살행동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14], Lee[15]의 연구에서도 가족 연합과 친구의 지지는 자살행동의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현정[16]의 연구에서는 '미래 기대' 요인이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대학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박준하[17]는 대학생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의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돌봐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사람의 존재 또는 이용 가능성[18]으로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된 변인 중 하나이며, 많은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으로 자살생각과 사회적 지지 사이의 부적 상관을 지지한다[19].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들의 부족한 사회적 지지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자살충동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20],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사회적 관계가 지지적이지 않으며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희망을 버린 상태에서 절망적으로 자살행동을 하게 된다[21]. 즉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 직업문제,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및 정신적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요인이라고 하였다[22].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 효과를 통하여 자살생각을 완화한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적(-)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

증되었다[23]. Brezo 등[24]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으며, 자살과 관련된 다른 변수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25]에서,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주는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학교애착,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강주현과 신택수[2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자살 원인과[27] 자살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자살의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와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보호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하나의 변수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즉 기존의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이유도 자살생각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 하위요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 삶의 이유의 증진을 개입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해봄으로써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이유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이유와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대학생의 자살생각의 보호요인과 그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여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개입 방안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소재 J 대학의 재학생으로 2015년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1~2학년 교양 및 전공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위해 각 수업시간에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수행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에 관해 설명을 하였으며, 연구에 동의하는 학생에게 작성하게 한 후 직접 수거하였다. 자료입력과 분석과정에서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39부를 제외한 60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requency	%
Gender	male	337	55.6
	female	271	44.4
	total	608	100.0
residence	family	312	51.4
	friend	13	2.1
	Dormitory	203	33.4
	Alone	62	10.2
	Etc	18	2.8
	total	608	100.0
GRADE	1grade	451	74.2
	2grade	157	25.8
	total	608	100.0
College	Commerce	163	26.8
	Technology	247	40.6
	Humanities	99	16.3
	Natural Sciences	99	16.3
	total	608	100.0

2.2 조사도구

2.2.1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는 Cohen 등[28]이 개발한 척도를 Cohen과 Williamson[29]이 요인분석을 통해 단축형으로 수정한 것으로 박준호와 서영석[3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지각과 긍정적 지각 등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35이었다.

2.2.2 자살생각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질문지는 Beck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를 사용하였다. SSI는 자살에 대한 생각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자기 파괴적인 희망이나 생각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여 현재 지닌 자살의도의 정도를 수량화시킨 자살사고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민섭[31]등이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변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0~2점까지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745이었다.

2.2.3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Zimet 등(1988)이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3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가족(4문항), 친구(4문항), 특별한 타인(4문항)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04이었다.

2.2.4 삶의 이유

Linehan이 개발한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를 이기원 등[33]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으로, 생존과 대처 신념 17문항, 죽음공포와 사회적 비난 7문항, 가족책임과 자녀걱정 5문항, 미래 기대 2문항으로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자녀 걱정에 해당하는 2개 문항은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하지 않은 이유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49이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4]의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때,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Macro를 통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수를 표준화한 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상호작용 효과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35]의 제안에 따라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통계적 유의성을 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36]가 고안한 SPSS Macro를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0.8 이상의 높은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을 ($r=-.331$, $p<.01$), 삶의 이유와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며, 삶의 이유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1	2	3	4
1 perceived stress	1			
2 Reasons for Living	-.331**	1		
3 social support	-.255**	.569**	1	
4 suicide idea	.400**	-.453**	-.333**	1

**p＜.01

3.2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삶의 이유가 매개할 것이라는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34]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beta=.400$, $t=10.688$, $p<.001$),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삶의 이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고($\beta=-.331$, $t=-8.557$, $p<.001$),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매

개변수인 삶의 이유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β= -.363, t= -9.831, p<.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삶의 이유를 고려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β=.280, t=7.586, p<.001), 1단계의 효과에 비해서는 작게 나타났으므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삶의 이유가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Mediation Effect of Reasons for living about perceived stress and suicide idea

	suicide idea		Reasons for Living		suicide idea	
	B	β	B	β	B	β
stress	.291	.400***	-1.000	-.331***	.230	.280***
Reasons for Living					-.086	-.363***
1					-.157	-.430***
2					-.097	-.130**
3					.279	.104
4					-.081	-.043

1. survaval and coping beliefs, 2. Fear of suicide and social disapproval, 3. Expectations of future, 4. Responsibility of family

다음으로 삶의 이유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macro를 통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으로 재추출한 표본수는 1,000개였으며, 매개효과 계수 값은 .0871이었다. 95%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은 .0592, 상한 값은 .2599으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는 유의미한 간접효과임을 확인하였다.

<Table 4> Mediation Effect of Reasons for living bootstrap results

	Boot B	Boot SE	95%	
			LLCI	ULCI
Reasons for Living	.0871	.0166	.0592	.2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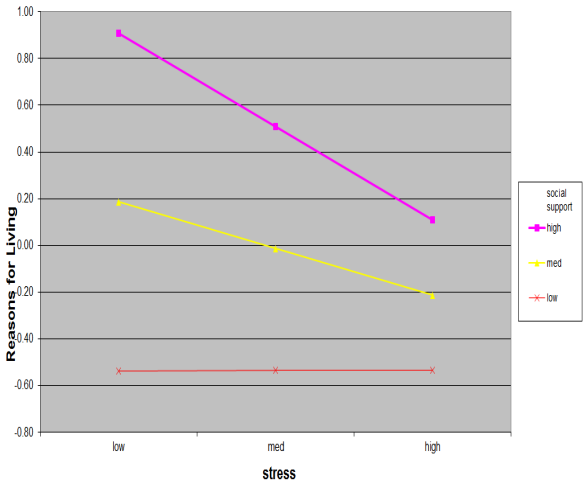
3.3 스트레스와 삶의 이유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스트레스와 삶의 이유의 관계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35]의 제안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수들을 표준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스트레스를, 2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삶의 이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31, t=-8.557, p<.001). 2단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β=.517, t=15.221, p<.0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triangle R^2$=-.331, p<.001) 확인되었다.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단순기울기 검증을 통해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때,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지점을 각각 저, 중, 고수준으로 설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회귀식에 대입하여 상호작용효과 양상을 [Fig. 1]에 제시하였다.

<Table 5> social support Moderating Effects

		dependent variable: Reasons for Living			
		B	β	R^2	$\triangle R^2$
1	stress	-.330	-.331***	.109***	
2	stress	-.199	-.198***	.356***	.247***
	social support	.517	.517***		
3	stress	-.200	-.119***	.380***	.024***
	social support	.520	.520***		
	stress × social support	-.210	-.210*		



[Fig. 1] social support Moderating Effects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의 삶의 이유가 증가하는 정도가 더 유의하게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으면 삶의 이유는 낮아지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우는 삶의 이유 변화량이 크지만,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는 그 변화량이 적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통한 삶의 이유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이유에 미치는 효과인 단순회귀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Hayes와 Mattes의 SPSS macro를 이용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스트레스가 삶의 이유에 미치는 단순회귀선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삶의 이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Moderating Effects

	B	t	LLCI(b)	ULCI(b)
-1SD	-.1583	-2.8901**	-.2659	-.0507
Mean	-.1997	-5.5987***	-.2698	-.1297
+1SD	-.2411	-5.1726***	-.3327	-.1496

3.4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이 결합된 매개된 조절 모형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조절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Hayes[36]가 고안한 PROCE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삶의 이유가 자살생각에 부적영향을 미치는(t=-7.1840, p<.001)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절효과에 따라 스트레스가 삶의 이유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데(t=-.3737, p<.001)있어 이러한 영향이 스트레스×사회적 지지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가 커지면 더욱 감소한다는(t=-2.3967, p<.05)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매개된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평균값과 ± 표준편차값을 이용하여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의 모든 수준에서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아 모든 매개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삶의 이유를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개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7>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stress, reasons for living, social support, suicide idea

	Reasons for Living		suicide idea	
	B	t	B	t
stress	-.1999	-.3737***	1.2513	7.0242***
social support	.5199	11.3980***		
stress × social support	-.2007	-2.2967*		
Reasons for Living			-1.6247	-7.1840***

<Table 8>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B	t	LLCI(b)	ULCI(b)
-1SD	1.5808	5.7998**	1.0455	2.1160
Mean	1.1783	6.9768**	.8466	1.5099
+1SD	.7758	4.0609**	.4006	1.1510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삶의 이유를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력을 사회적 지지가 강화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37,38,39]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40,47]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스트레스에 적절한 대처방법을 가지지 못한 대학생의 경우 자살과 같은 잘못된 해결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훈련, 문제해결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는 취업지원, 학생생활 상담실 등 대학생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개입하는 기관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상담이 진로상담 또는 대학생활 적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스트레스와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 영역의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삶의 이유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삶의 이유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ang 등[41]의 연구에서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가 스트레스적인 삶의 사건과 자살사고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삶의 이유라는 매개변인을 통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생의 자살생각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개변인 삶의 이유를 증진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에서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 중심의 교육과 더불어 개인의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삶의 요인의 하위 요인 중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생존과 대처 신념', '죽음과 사회적 비난에 대한 공포'로 나타났다. '생존과 대처 신념'은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스로 잘 극복해 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내고자 하는 노력이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삶의 의미수준의 저하는 자살생각을 증가시키기[42] 때문에 대학생의 삶의 의미를 고양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의 교양과목에서 자아성찰, 자아성장 등의 인성교육 교양과목 개설 및 운영 등의 대학 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죽음과 사회적 비난에 대한 공포'는 자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한다. 이는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가 자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향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종교적 영역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이유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이유의 매개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이유를 증진하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살위기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의 연구에서[43] 자살생각을 가진 내담자는 사회적 지지를 매우 미약하게 지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도와줄 지지체계를 갖고 있지 않고 도와줄 가능성이 없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반면, 위기 상황에서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은 다시 살고 싶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44], 자살예방 실천 현장에서는 자신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45,46]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의 영향으로 가족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약화되어있기 때문에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부족할 경우 자살예방 상담기관, 학교 상담실, 병원 등 공식적인 지지체계를 확충하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내 상담센터는 자살예방을 위한 특화된 상담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자살 위기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교내에 정신건강 교육의 일환으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우울 등에 대한 정기적인 스크리닝과, 대학생 대상 게이트키퍼(Gate keeper) 양성을 통해 자살고위험군의 조기발견 및 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삶의 이유와 사회적 지지라는 보호요인에 중점을 두고 개입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보건의 영역에서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아닌 교육, 종교, 복지, 의학 등의 각 영역에서 함께하는 포괄적인 개입이 필요한 하는 융 복합적인 이슈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 집단이 특정 지역 학교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른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일반화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 관한 양적연구였으나, 실제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삶의 이유와 사회적지지가 어떻게

완충역할을 하는지 심층적인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Sohn, J. N., “Original Articles : Discriminating Power of Suicidal Ideation by Life Stress. Coping Strategy.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Vol. 16, No. 3, pp.267-275, 2007.

[2] Statistics Office, “Cause of death statistics of 2014’ http://kostat.go.kr/portal/korea/, 2015.

[3] Park, J. Y., Kim, J. K.. “The Effects of Life Stress on University Student‘s Suicide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Pathway of Family and Friend‘s Support”. Korean J of youth studies, Vol. 21, No. 1, pp.167-189, 2014.

[4] Joiner, T., Rudd, M., "Negative attributional style for interpersonal events and the occurrence of severe interpersonal disruptions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5, No. 2, pp. 297-304, 1995.

[5] Hendin, H., "Youth suicid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17, No. 2, pp. 151-165, 1987.

[6] Dixon, W. A., Rumford, K. G., Heppner, P. P., d Lips, B. J., "Use of Different Sources of Stress to Predict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9, No. 3, pp. 342-349, 1992.

[7] Chang, E. C., 2002, "Predicting suicide ideation in an adolescent population: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problem solving as a moderator and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2, No. 7, pp. 1279-1291, 2002.

[8] Wilburn, V., Smith, D. E., "Stress, self esteem and suicidal ideation in late adolescents". Adolescence, Vol. 40, No157, pp. 33-45. 2005.

[9] Linehan, M. M., Goodstein, J. L., Nielsen, S. L., Chiles, J. A., "Reasons for staying alive when you are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1, No. 2, pp. 276-286. 1983.

[10] Bonner, R. L., Rich, A. R., “Toward a Perspec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17, pp. 50-63, 1987.

[11] Lee, Y. R., “Cognitive buffers against suicide desire. suicide prevention. and suicide attempt: Reason for living. Master’s dissertation”. Yunsee University of Korea. 2008.

[13] Lee, J. Y.,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on Suicidal ideation: Anger expression, Reason for Living, Social Support as a Moderate”. Master’s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of Korea. 2012.

[14] Osman, A., Kopper, B. A., Barrios, F. X. Osman, J. R, Besett, T., & Linehan, M. M. (1996). The brief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BRFL-A). Journal of Abnormal Clinical Psychology, 24(4), 433-443.

[15] Lee, S. Y. (2011). Reasons for Living and Their Moderating Effects on Korean Adolescents's Suicidal Ideation. *Death Studies,* 35, 711-728.

[16] Choi, H. J.. “The Influence of Optimism and Reasons for Living on Suicide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of Korea. 2011.

[17] Park, J. 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College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2012.

[19] Bolton, C., Gooding, P., Kapur, N., Barrowcloough, C., Tarrier, N., "Developing psychological perspectives of suicidal behavior and risk in people with a diagnosis of schizophrenia;we know they kill themselves but to we understand why?".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27, 511-536. 2007.

[20] Rudd, M. D., Rajab, M. H., Dahm, P. F., "Problem-solving appraisal in suicide ideators and attempts". American Jorunal of Orthosychiatry, Vol. 58, pp. 562-564. 1994.

[21] Hong, K, E., “Children and youth suicide: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Suicide”. Korea Suicide Prevention Association, 2008.

[22] Brown, S., Vinokur, A. D., "The Interplay Among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The Role of Depression, Poor Health, and Loved Ones' Messages of Support and Criticism".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2, pp. 131-141. 2003

[23] Park, D. S.,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f Health College Students on Their Suicidal Ideation : Control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2, pp. 728-736. 2013.

[24] Brezo, J., Paris, J., Tremblay, R., Vitaro, F., Zoccolillo, M., Hebert, M., "Personality traits as correlates of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ults". Psychological medicine, Vol. 36, pp. 191-202. 2006.

[25] Cho,i Y. J., “Stress, suicidal ideation, and protective factors in college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3, No. 3, pp. 77-104. 2012.

[26] Kang, J. H., Shin, T. S., “The Effects of Adolescents`` Stress on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5, pp. 27-51, 2015.

[27] Sea, J. H., Lee, C. H., Kim, K. I., Kim, S. H., “ Characteristics of Korean suicide: a case-control psychological autopsy stud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31, No. 2, pp. 323-344, 2012.

[28] Cohen, S., Willis, T. A.,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98, pp. 310-357, 1985.

[29] Cohen, S., Williamson, G. M., “Perceived stress in a probability sample of the United States. In S. Spacapan and Oskamp(Eds.), The social psychology of health (pp. 31-67)”. Newbery Park, CA: Sage, 1998.

[30] Park, J O., Seo, Y. S., “Validat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PSS) on Sampl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of Psychology: General. Vol. 29, No. 3, pp. 611-629, 2010.

[31] Shin, M. S., Park, K. B., Oh, K. J., Kim, Z. S..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 Hopelessness . and Suicidal Ideation”. The Korean J. of Clinical Psychology. Vol. 9, No. 1, pp. 1-19, 1990.

[32] Shin, J. S., Lee, Y. B.,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Psychosocial Well-being of the Unemploy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37, pp. 241-269, 1999.

[33] Lee, K. W., Hyun, M. H., Lee, S. J.,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5, No. 2, pp. 227-242, 2010.

[34] Baron, R. M., Kenny, D. A.,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 1986.

[35] Aiken, L. S., West, S. G.,,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1991.

[36] Hayes, A. F.,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2013.

[37] Ko, J. H. Yun, K. R.,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 The Role of Ego-Resiliency as a Buffer”.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8, No. 1 , pp. 185-212, 2007.

[38] Kim, B. Y.,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Master's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8.

[39] Kim, Y H., Yang, M. S., Park, H. R., “ A Study on a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 291-301, 2015.

[40] Chin, E. Y., So, S. S., Lee, M. I., “Effect of Life Stress and Anger Expression in College Students on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409-418, 2015.

[41] Wang, M. C., Lightsey, O. R., Pietruszka, T., Uruk, A. C., Wells, A. G., "Purpose in life and reasons for living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 2, No. 3, pp. 195-204, 2007.

[42] Garlow, S. J., Rosenberh, J., Moore, J. D., Hass, A. P., Koestner, B. K., Hendin, H., "Depression, despera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Results from the 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college screening project at emory university". Depression and anxiety, Vol. 25, pp. 482-488, 2008.

[43] Oh, E. K., “Study on Psychosocial Traits of Clients Experienced Suicide Ideation : Focused on cyber suicide-crisis counseling”. Master’s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3.

[44] Kwon J. D., Kim, Y. J., Um, T. Y., “The Meaning and Pathways of Suicidal Experiences among Older Adults: a Grounded Theory Method”.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2, pp. 419-446, 2011.

[45] Lee, J. Y., Moon, Y. S., “Effects of Chronic Pain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uicide in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0, pp. 445-458, 2015.

[46] Seung-Ok Shin, Jong Park, “Converged Assoc 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Among Som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71-277, 2015.

[47] Yun-Jeong Kim, “Type of Coping with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29-39, 2014.

김 성 혜(Kim, Sung Hye)

・2000년 2월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2005년 8월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2015년 2월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2014년 10월 ~ 현재 : 전북대학교 행복드림센터 재직
・관심분야 : 정신건강, 사회복지실천
・E-Mail : goodsh@hanmail.net